작물보호협회, 대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

7. 9일 · 15일, 강화군 농업대학 및 여주시 귀농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지난 7월 9일과 15일 2회에 걸쳐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및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대학 및 귀농 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법」 강의를 실시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지역 농업대학」코스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특화 작목반 80여명을 대상으로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전문 강의가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농사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이지만, 전문적인 강의로는 처음 작물보호제(농약)를 접하는 기회여서 강의 내내 사뭇 진지한 모습이 감돌았다.

강화군 농업대학의 학생회장 윤재호(60세)씨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어려운것이 농약 사용"이라면서 "교육시간이 오후 2시부터 매우 졸린 시간이었지만, 한사람도 졸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농약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된 수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 귀농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은 최근 이루어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를 제외하고 농사 경력이 전무하거나, 주말농장에서 약간의 경험을 갖춘 귀농 · 귀촌인들에게 농약에 대한 입문코스로써 작물보호제(농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르는 교육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에 사는 이용희(46세)씨는 "그간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이 많이 바뀌는 소중한 계기였다"면서 "농약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고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교육 소회를 밝혔다.

작물보호協 · CropLife Asia, 「공동 현안 협력방안 협의회」 개최

7.3 협회 회의실서, 국내외 현안 공조체계 공고히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지난 7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세계작물보호협회(CropLife international)의 아시아 지부격인 CropLife Asia와 함께 최근 현안 이슈의 효율적인 대응 및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현안 협력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CropLife Asia의 Tan Sianghee박사와 양소망 매니저, 한국작물보호협회 기술위원 및 스튜어드십의 회원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는 최근 EU의 꿀벌평가 및 WHO산하 IARC에서의 발암성 분류 등 국제적 현안뿐 만 아니라 국내 현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먼저, 국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

는 밀수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문광고 및 리플릿 · 현수막 배포 현황, 약제 저항성 예방을 위한 라벨의 작용기구 표시제도, 농약보관함 배부,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농약살포자 노출량 산정모델 개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잔류시험 분야의 GLP 대응과 Positive List Sytem 도입 등에 대해 한국작물협회에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 CropLife Asia측에서는 EU 및 IARC 등의 조치가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이슈를 식품, 건강, 생물다양성, 규정 및 대외환경 조성 등 5대 조류로 분류,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국가 협회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날 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이근식 부장은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먼저 한국의 농업현황 및 산업 분위기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EU 등의 영향에 따른 조치 등에 공동 협력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경농, 창립 58주년 맞아 「새로운 경영 · 새로운 CI」 선포

7.9. 서초동 신축사옥서, '고객과 함께 글로벌 기업' 제 2의 도약 선언

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지난 7월 9일 「새로운 경영 새로운 CI」를 선포하고 농업인 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일류의 농업전문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결의했다.

경농은 이날 신축한 서울 서초구 동오빌딩 사옥에서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CI를 사내외에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CI는 경농의 창업정신인 동쪽하늘의 태양을 형상화 한 것으로, 한국농업의 대표기업 경농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 세계 으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기업 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심벌마크의 그래픽에서는 하늘을 기반으로 아날로그적 붓터치를 이용하여 농업과 자연을 담아내는 경농의 경영철학을 "O"로 표현했으며, 땅을 기반으로 선진농산업을 담아내는 경농의 앞선 기술력을 "—"로 표현했다.

이병만 회장은 이날 창립 58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농은 지난 58년간 우수 농자재 제품과 앞선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라고 임직원을 치하하고 "이제 변화하는 고객니즈와 농업환경에 발맞춰 지난 58년간 쌓아온 농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농업 리딩 컴퍼니로서의 책임과 의지를 담아 새로운 CI를 선포한다"라며 새로운 CI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모든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경농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냄으로써 소중한 농업인 고객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자"고 당부했다.

농협케미컬, 안산공장 「위험성관리 최우수 사업장」 선정

7. 6 안전보건공단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안전보건활동 부분 1위

지난 7월 6일 농협케미컬(대표이사 임승한) 안산공장이 전국 5,600여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중 위험성관리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농협케미컬 안산 공장은 고용노동부 주최,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서울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농협케미컬 안산공장은 예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하고 본선 12개 팀에 올라 우수사례 발표를 가진 결과 자체 TF팀을 꾸려 안전보건활동을 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농협케미컬 안산공장은 2014년 7월 위험요인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관내 화학제조업으로는 첫 번째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며, 같은 해 무재해 8배를 달성하여 모범적인 사업장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대회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이행을 공고히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농협케미컬 안산공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항상 최고의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동부팜한농, 「대상 · 아그로닉스와 상생 업무협약」 체결

7.17, 종자 개발부터 농식품 공급까지 통합협력체계 구축

동부팜한농(사장 박광호)이 지난 7월 17일 대상FNF(주) 및 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주)와 대한민국 종자산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부팜한농은 대상 FNF 및 아그로닉스가 요청하는 품종의 개발과 재배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농산물 유통 전문기업인 아그로닉스는 개발된 종자의 농가 보급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신선식품 전문기업인 대상 FNF는 해당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개발에 나선다.

협약식에 참석한 3사 관계자들은 종자의 개발부터 농산물 생산 · 유통 및 농식품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과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및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팜한농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비자의 기호와 농식품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종자를 개발하는 맞춤형 육종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또 김치 브랜드 파워 1위인 '종가집' 브랜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대상 FN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종자 시장 점유율 1위인 동부팜한농은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종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양사 간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그로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협약 이전에도 동부팜한농과 성공적인 협업을 경험한 바 있다. 동부팜한농이 '베타후레쉬 배추'를 개발할 당시 아그로닉스가 시험재배에 참

여했다. 올해 출시된 베타후레쉬 배추는 일반 배추에 비해 베타카로틴 함량이 150배나 높은 기능성 배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동부팜한농, 「2016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 개최

7. 16 – 7. 18 충북 단양서,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 위한 아이디어 협의

동부팜한농(대표이사 박광호)이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2016년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작물보호사업부 마케팅팀의 본사 및 지점직원 약 30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한 프로모션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2016년 마케팅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충남의 명산인 금수산을 오르며 목표달성 결의를 굳건히 하고 전국 마케팅 담당직원 간의 결속을 다졌으며 특히 2016년 출시 예정인 갈색무늬병 전문약 '만데스 액상수화제', 응애 전문약 '노블레스 액상수화제' 등 신제품의 전시포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시포 평가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별, 작물별 고객 의견을 공유하며 제품 품질 개선과 효과적인 사용방법 정립,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추진한 이창열 마케팅팀장은 "농업인 고객들의 숨은 가치와 바람을 만족시키고 시장의 변화를 리드하는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며 "굳건한 시장을 열어내는 통찰력과 도전의식을 갖추고 농업시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바이엘, 「크롭 플랫폼 벼 행사」 개최

7.22 충남 서산서, 벼 재배 주요 현안 설명 및 해결책 제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대표이사 롤프 디거)가 지난 7월 22일 충남 서산에서 충남, 전북, 경기 지역의 벼 대농가 및 주요 시판상들을 초청해 벼 재배에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이엘 「크롭 플랫폼 벼 행사」를 개최하였다.

농기계 회사와 연계하여 작물보호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보트 등도 함께 소개한 이번 행사는 바스타를 이용한 안전한 논둑 잡초 방제, 수도제초제 확산성, 벼 병해충 및 육묘상자 처리제(리전트슈퍼), 논 잡초 및 수도제초제(보디가드, 풀아웃, 카운실), 선진 농기계 소개 등 각 주제별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여 벼 재배에 있어서 농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참석한 농가들은 바이엘 제품을 처리한 포장을 보면서 바이엘 제품의 우수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

이라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단히 만족하였다.

롤프 디거 대표이사는 "중요한 고객이자 또한 그동안 신뢰를 보내 주셨던 분들을 초청하여 크롭 플랫폼 벼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바이엘 수도용 제품의 효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이엘 크롭 플랫폼 벼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 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30여 대농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성보화학, 「2015 하계 워크숍」 성료

7.1 – 7.3 충북 단양서, '도약 성보 · 하나 우리' 주제로

성보화학(대표이사 유용률)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도약하는 성보,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2015하계 워크숍」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다짐했다.

영업본부 및 개발마케팅 본부, 연구소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년 출시 예정인 신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살균 살충제초제별 시장 현황 분석,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분임 토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루어졌다.

성보화학측은 "도약하는 성보, 하나 되는 우리"라는 워크숍 주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성보화학, 「2015신입사원 성장 플러스(+) 워크숍」 개최

7. 9 – 7. 10 강원 홍천서, 내적성장 통한 조직몰입도 향상 도모

성보화학(대표이사 유용률)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2015신입사원 성장 플러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 동안 회사 업무와 조직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신입사원을 격려하기 위해 '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 워크숍은 산림치유 워킹을 비롯한 와식 명상, 숲속 요가 등 자연 속 체험 프로그램과 핵심가치 전파, 조직에서의 소통 강의, 선배와의 대화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일반적인 연수방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입사원의 내적인 성장을 통한 조직몰입도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현창호 경영기획팀장은 "각각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기들이 전부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신입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이번 연수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